CONTENTS

사회: 윤석민(서울대)

한국사회과학조사(KMOS) 소개 01
발표: 조성겸(충남대)

왜 불평등인가?
개인수준에서 바라본 불평등과 '사회건강' 간의 관계 17
발표: 황선재(충남대)

뉴스 이용의 인터넷 의존 심화 및
뉴스매체 레퍼토리 증가에 대한 분석 35
발표: 이범준(서울대)

종합토론
심미선(순천향대), 최윤정(이화여대), 송인덕(중부대)
한진만(강원대), 권장원(대구가톨릭대), 김성중(중앙대)

01

한국사회과학조사(KMOS) 데이터와 언론학 연구

한국사회과학조사(KMOS) 소개

발표: 조성겸(충남대)

01.

한국사회과학조사(KMOS: : Korea Multi-mode Open Survey for Social Sciences) 소개

조성겸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1. KMOS 사업의 배경과 목적

1) 사업의 목적

오늘날 한국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현상은 다양한 사회 요인들이 결합하여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 연구 역시 다양한 분야들이 융합하여 보다 복합적인 심층 분석이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들이 기획되면서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조사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사회과학조사들은 다양한 연구자의 조사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향후 국내 사회과학을 이끌어갈 유능한 차세대 연구자들은 과학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연구,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 미래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이들 젊은 사회과학자들에 대한 연구 기회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사업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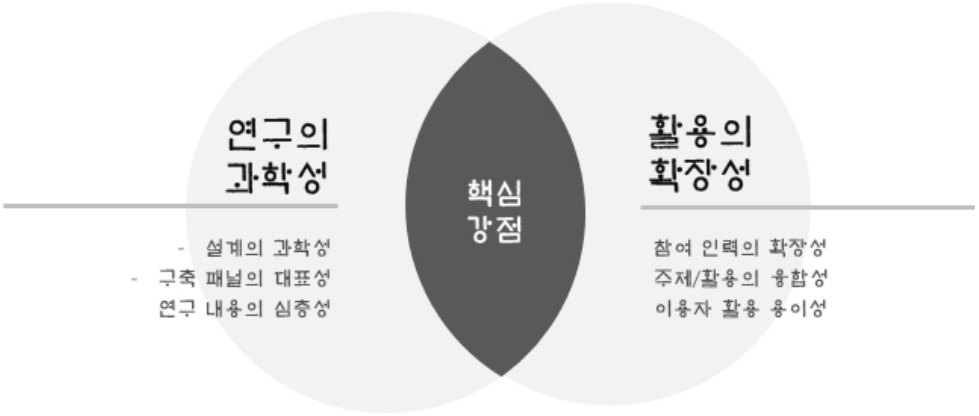
한국사회과학조사(KMOS: Korea Multi-mode Open Survey for Social Sciences)는 표본추출, 설문구성, 실사관리 등 과학적·체계적·엄밀성을 확보한 학술조사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사회과학연구의 적실성 제고와 미래 사회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술조사연구 환경 및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또한 과학적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기술적 전문성 등으로 인해 과학적 조사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회과학분야 일반연구자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학술패널을 구축 및 운영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는 연구이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체계를 마련/시행함으로써 사회과학 관련 폭넓은 시각들이 서로 교직하면서 융합적 연구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연구자 및 일반 시민에 제공함으로써 사회과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사업의 특징

〈그림. 1-1-1〉 본 사업의 핵심 강점



(1) 설계의 과학성
- 정부승인통계 등과 동일한 수준의 설계
- 실제 조사 결과에 기반한 실증적 설계 수립 및 운영

(2) 구축 패널의 대표성
- 확률표집방법의 엄격한 활용
- 100% 검증 등 실사 운영의 시스템화

(3) 내용의 심층성
-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새로운 주제 및 논리 연구 병행
- 사전 계획에 따른 심층적 분석 및 연구

(4) 참여 인력의 확장성
- 협력 연구자 및 차세대 연구자 참여
- 사회과학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주제 공모

(5) 주제/활용의 융합성
- 주제/시기를 통합하는 융합적 data 구축 및 운영
- 통계청 사회조사 등 타 통계 자료와의 비교 분석

(6) 이용자 활용의 용이성

- 사회과학 연구자, 일반인의 특성을 고려한 보고서 및 data
- 뉴스레터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

▌3. 1차 조사의 체계

1) 요약

▌조사 방법 : 가구방문 면접조사

▌조사 대상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반 국민

▌조사 지역 : 전국

▌유효 표본 : 3,004명

▌응답률 : 63.0% (4,770명을 접촉하여 이중 3,004명 응답 완료)

▌데이터 활용 표본 : 2,000명 (표본 추출 원칙에 근거하여, 응답의 성실성, 시계열 순서 고려 활용)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2%p

▌조사 시기 : 2016. 2. 16 ~ 2016. 5. 16(3개월간)

▌주관 기관 : 한국연구재단

▌수행 기관 : 충남대학교 아시아여론연구소

▌실사 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

2) 표본 설계

(1) 모집단 정의

· 목표 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내국인을 목표 모집단으로 정의하였다.

· 조사 모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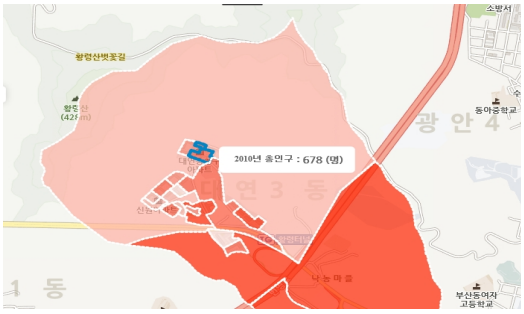
: 조사하기 어려운 기술시설, 특수사회시설, 외국인거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가구원을 조사 모집단으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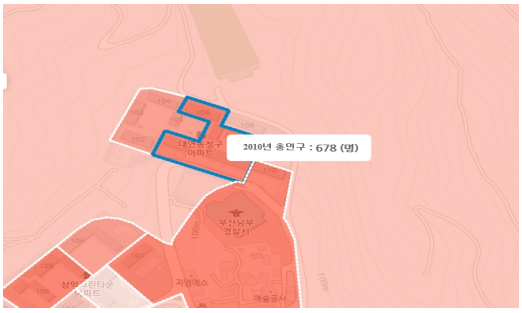
(2) 표본추출틀

표본추출틀은 성, 연령, 학력, 혼인상태, 주택유형, 세대구성 등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인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집계구(statistiscal block)들로 구성하였다.

<그림. 1-2-1> 집계구 위치에 대한 지도 정보 예시

* 부산시 남구 대연3동 2107055020011 집계구





(3) 표본 추출

① 집계구 추출

시도별 동읍면부별과 주택유형별로 할당된 표본집계구는 집계구내의 가구 수와 인구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선정하는데 배분된 표본집계구 수가 1개 또는 2개인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표본집계구를 추출하였다

② 집계구내의 가구 추출

집계구당 평균가구수는 200가구정도이므로 표본으로 선정된 집계구에서 기준점을 정한 후에 8가구 간격으로 계통추출법으로 25가구를 현장에서 선정하였다. 또한 집계구의 유형(아파트와 일반주택)에 따라서 계통추출법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조사원에 의한 선택 편향을 통제하였다

③ 표본조사 대상 가구 내 가구원조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은 모두 조사하며 1차 조사 방문 시에는 조사적격여부를 확인 후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3) 조사문항

(1) 전반적 구성 형태

본 조사의 문항 구성은 조사의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등에서 발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 및 사회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는 '옴니버스 형태'의 가변적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는 '연구수요 맞춤형'일 뿐 아니라 높은 시의성을 띠는 '시대 맞춤형'이라는 측면에서도 전례 없는 가치를 지닌다. 시기별 연구주제 공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항수집 방식은 자연히 시의성 높은 연구주제와 관련 문항의 선택으로 이어지며, 이는 사회과학연구에서 전통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현실과 연구 간의 시차(time lag)를 줄이는 데 공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향식 연구방식은 자료수집 시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다 수월히 연구로 확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본격적인 '문제중심 사회과학연구(problem-driven social sciences)'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6-1〉 조사 문항 구성 형태

주제와 구체적 항목은 통계청 사회조사, LISS 패널 등 기존의 사회과학 관련 조사 문항을 기초로, 최근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포착하는 문항을 추가하여, 참여 연구진과 협력 연구진의 회의로 초안의 형태를 구성하고, 이를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검토하고, 최종 문항을 결정하여, 국가/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제 및 문항으로 설계되었다.

(2) 사회지표 문항

사회지표 문항은 11개의 분야로 이루어지고, 사회과학 전반에 필요한 사회지표 문항을 배정함으로서,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data를 수집함과 동시에, 다른 사회과학 분야의 변수를 혼합하여 융합적인 결과 도출에 활용할 수 있는 융합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3) 연구주제 문항

연구주제 문항은 한일 역사 갈등, 고령화·저출산 문제, 교육문제, 남녀 성역할의 변화, 계층·직업 인식의 변화, 경제적 안정 및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 자살율 증가, 미디어 이용패턴의 변화 등 최근 주요 사회적 이슈를 대처하는데 필요한 주제 및 문항을 선정하였다. 특히 한국의 기존 사회조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일/가정 성역할, 사회적 이슈에 관한 미디어별 이용 등에 관해 학술연구가 가능한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가족/성역할' 문항들은 오늘날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남녀 성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재 한국사회에서 주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족형성(결혼)과 해체(이혼)의 문제를 성역할 인식변화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인 조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한데, 본 문항들에 대한 분석은 성역할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인이 가족형성과 해체라는 사회적 실제에 미치는 객관적인 영향력을 새로이 재조명해 볼 수 있게 하였다.

2016년 1차 한국사회과학조사의 구성 문항

주제	분류	설문 문항
인구학적 특성	변인	성별
	변인	연령별
	변인	지역별
국가관/ 민족	지표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지표	한국 역사 자긍심
	지표	남북통일의 필요성
	지표	한국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지표	한국 거주 다문화가정에 대한 친근감
사회 신뢰/ 갈등	지표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
	(연구)	사회 분야별 신뢰도
	지표	한국 사회의 갈등 심각성
	지표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
계층 의식	(연구)	계층 귀속감
	지표	본인 귀속 계층
	(연구)	주요 분야별 사회 평등 수준
	(연구)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 평가
	(연구)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 평가
국가 가계 경제 /직업	지표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
	지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지표	가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지표	가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지표	직업 만족도
	(연구)	직업 자부심
	(연구)	직업 접근 수준
	지표	소득(고용/폐업)불안감
가족/ 성 역할	지표	가정생활 만족도
	지표	결혼에 대한 인식
	지표	이혼에 대한 인식
	(연구)	가정 내 남편과 아내의 역할
	(연구)	생계 이외 경제활동
	(연구)	주 소득원
	지표	여성 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
	(연구)	성 역할에 대한 주요 의견 공감도
자녀/ 교육	(연구)	자녀 여부에 대한 인식
	(연구)	희망하는 자녀 수
	(연구)	희망하는 자녀 성별
	(연구)	자녀 교육비 비중
	(연구)	자녀 교육비 부담감
	(연구)	자녀 교육비 지출 가능 수준
	지표	자녀 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자녀 교육에 대한 주요 의견 공감도
심리적 충족감	지표	행복감
	(연구)	스트레스 경험 수준
	지표	자살 충동
	지표	자살 충동 이유

주제	분류	설문 문항
고령화/ 저출산	지표	고령화의 심각성
	지표	저출산의 심각성
	지표	인구구조 변화의 개인 삶에 대한 영향
	(연구)	인구감소 현상의 사회 영향
	(연구)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인위적 대책 필요성
	(연구)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 해결 방안
	(연구)	적극적 이민 대책에 대한 인식
생활 환경	지표	삶의 질 만족도
	지표	사회 안전 불안감
	지표	행정 서비스 만족도
	지표	복지 수준 만족도
	지표	향후 필요한 복지 서비스
	지표	여가 생활의 양 만족도
	지표	여가 방식 만족도
	(연구)	여가 유형 경험 수준
	(연구)	공연/행사 경험 수준
	(연구)	1주일 평균 운동 시간
	(연구)	운동 종류
	(연구)	1개월간 독서 여부
	(연구)	독서 서적 종류
미디어/ 소통	지표	인터넷 이용 시간
	지표	TV 시청 시간
	(연구)	TV 프로그램별 시청 시간
	(연구)	주요 정보원 또는 뉴스 매체
	(연구)	사회 현안 정보 접촉 주체
	(연구)	주요 매체별 1주일 평균 뉴스 시청 수준
	(연구)	주요 매체별 사회적 현안 뉴스 관심 수준
	(연구)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화 수준
	(연구)	사회적 현안 대화에서 의견 일치 수준
	(연구)	사회 현안 대화 주체
정치/ 이념	지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지표	지지 정당
	지표	투표 행위 성향
	지표	이념 성향
	지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
	지표	선호 통치 체계
사회적 특성	변인	출신지
	변인	교육 수준
	변인	직업
	변인	(취업형태)정규직여부
	변인	혼인 상태
	변인	가구원 수
	변인	종교
	변인	가구 총소득
	변인	주택 보유 여부
	변인	주택유형

▌4. 2차 조사 체계

1) 요약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를 중심으로(90.4%)
온라인 조사 거부 노년층은 타 조사 방법 병행(9.6%)

▌조사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반 국민 중 대면면접조사(1차조사)로 구축된 패널 2,000명

▌조사 지역 : 전국

▌유효 표본 : 1,013명

▌응 답 률 : 50.7% (2,000명을 접촉하여 1,013명 응답 완료)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08%p

▌조사 시기 : 2016. 6. 23 ~ 2016. 8. 9(48일간)

▌후원 기관 : 한국연구재단

▌수행 기관 : 충남대학교 아시아여론연구소

▌실사 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

2) 표본

대면면접조사 방식의 1차조사를 통해 구축된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 등을 통해 시행하였다. 이러한 표본의 패널화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다.

- 주제/시기를 통합하는 융합적 data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연구 활용 폭 확대
- 조사 시행과 결과 분석의 운영 폭 상승
- 패널화를 통한 실제 유효응답자 수의 확대

〈그림. 1-3-1〉 유효 응답자 구성 과정

표본은 1차조사를 통해 구축된 패널 2,000명을 대상으로 확률표집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응답율 제고를 위해 본인의 동의 하에 수집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에 조사 안내와 조사 URL을 개인당 최대 5회에 걸쳐 발송하고, 미응답자에게는 개인당 최대 3회의 전화 안내원 1:1 연락을 통해 조사 참여 협조 활동을 전개하였다.

온라인조사의 특성 상 60대 이상 노년층의 응답율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60세 이상 노년층 중 온라인 조사 방식 자체를 활용하기 어려워하는 응답자(전체의 9.6%)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선호하는 형태의 대면면접조사, 전화조사 등 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아시아여론연구소에서 검증을 시행하였다.

3) 가중치 적용

(1) 무응답

본 한국사회과학조사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항목에 대한 응답을 받아내도록 노력하였다. 단, 법과학의 경우 전문적인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응답자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고, 담당 연구자과의 협의에 따라 무응답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과학 관련 문항은 무응답을 허용하였다.

(2) 사후 가중치

성/연령/지역별 사후가중치를 부여하여, 모집단의 분포와 동일하도록 보정하였다.

3) 조사문항

2016년 2차 한국사회과학조사의 구성 문항

주제	분류	설문 문항
노년/ 노인	(연구)	본인 노년 불안감
	(연구)	- 내 문제를 다른 누군가가 결정한다는 생각을 하면 불안
	(연구)	-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걱정이다
	(연구)	- 나이가 들었을 때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을까봐 두렵다
	(연구)	평소 노인 관련 인식
	(연구)	- 나는 노인과 만나면, 때때로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한다
	(연구)	- 노인이 나에게 말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연구)	- 노인들은 따로 지역운동시설을 사용하면 좋겠다
	(연구)	- 노인들의 주거공간은 따로 마련되는 것이 좋다
인터넷 뉴스 이용	(연구)	1주일 기준 인터넷 뉴스 이용 수준
	(연구)	- 포털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
	(연구)	- 언론사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연구)	- 소셜미디어/블로그/커뮤니티/메신저 링크 인터넷 뉴스
	(연구)	포털사이트 뉴스 이용 행태
	(연구)	- 메인 페이지의 뉴스 제목/사진을 보고 뉴스 클릭 이용
	(연구)	- 뉴스코너에서 관심있는 분야/주제의 뉴스를 찾아서 이용
	(연구)	- 뉴스 코너에서 특정 언론사의 뉴스를 찾아서 이용
	(연구)	- 내가 미리 설정한 뉴스(MY뉴스,구독뉴스등)를 통해 이용
	(연구)	- 보고 싶은 기사를 검색 창에 입력해 찾아 이용
	(연구)	-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른 인물이나 사건을 찾아 이용
	(연구)	-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다가 관련 뉴스를 이용
	(연구)	포털사이트 뉴스 이용 언론사
법과학	(연구)	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시행에 대한 찬반
	(연구)	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시행에 대한 찬반 이유
	(연구)	- 찬성 이유
	(연구)	- 반대 이유
	(연구)	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입력 범죄 항목의 확대 찬반
	(연구)	철거 관련 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대상 제외 인식
	(연구)	유전자 보관 및 활용 시기에 대한 인식
	(연구)	변사체 유전자 검사 시행 및 자료 보관에 대한 찬반
	(연구)	화학 데이터베이스 분석/저장/활용에 대한 찬반
	지표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찬반
	(연구)	법과학 기술의 개인정보/신체적 자유 제한 우려 의견
	(연구)	법과학 발전 중요 요소

주제	분류	설문 문항
직업 위세	(연구)	택시기사
	(연구)	신문기자
	(연구)	간호사
	(연구)	이발사
	(연구)	관공서 국장
	(연구)	아파트 경비원
	(연구)	목수
	(연구)	파출부
	(연구)	중학교 교사
	(연구)	세탁소 주인
	(연구)	자영농
	(연구)	공장 작업반장
	(연구)	공장 직공
	(연구)	은행 대리
	(연구)	연예인
	(연구)	판사
	(연구)	동사무소 직원
	(연구)	대학교수
	(연구)	중소기업 과장
	(연구)	자동차 정비공
	(연구)	군 장성
	(연구)	미싱공
	(연구)	백화점 직원
	(연구)	막노동자
	(연구)	전자대리점 사장
	(연구)	대기업 부장
	(연구)	음식점 주인
	(연구)	행상
	(연구)	교통 경찰관
	(연구)	약사

4) 조사결과

○ **인구사회학적 특성 결과 비교**

- 성/연령 가중치 간이 보정 결과

		정부 통계 자료	갤럽 조사	본 조사
학력 (통계청,사회조사)	중졸 이하	16.3	15.4	12.0
	고졸	34.7	40.9	37.2
	대재 이상	49.1	43.6	50.8
직업 (통계청, 사회조사)	농/임/어업	5.6	2.5	3.8
	자영업	11.3	12.8	14.8
	블루칼라	15.4	27.3	19.7
	화이트칼라	29.8	22.6	27.4
	가정주부	16.1	22.9	19.1
	학생	4.2	7.4	10.6
	무직/기타	17.5	4.6	4.6
혼인 여부 (통계청, 사회조사)	미혼	22.6	23.0	22.1
	기혼	65.7	73.1	72.1
	이혼/사별	11.7	3.9	5.8
종교	불교	-	20.7	18.6
	개신교	-	21.2	19.6
	천주교	-	6.7	6.1
	기타	-	0.3	0.6
	종교 없음	-	51.1	55.2
계층 의식	상	-	8.9	7.2
	중상	-		
	중	-	51.8	52.8
	중하	-	32.1	34.3
	하	-	7.2	5.7
가구원 수	1인 가구	9.0	5.8	7.0
	2인	18.0	18.9	23.1
	3인	24.0	22.4	20.7
	4인 이상	49.0	52.9	49.3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	13.7	14.2
	200~299만원	-	14.9	13.1
	300~399만원	-	27.2	21.9
	400~499만원	-	19.0	25.0
	500만원 이상	-	25.2	25.9
주택유형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4)	아파트/주상복합	49.6	50.5	54.7
	오피스텔	1.0	0.8	0.6
	단독주택	37.5	30.9	27.8
	연립/다세대주택	9.6	17.3	16.3
	기타	2.2	0.5	0.6

○ 1차조사 응답자와 2차조사 응답자의 1차조사 주요 문항 결과 비교

문번	내용	1차조사 응답자(2,000명)		2차조사 응답자(1,008명)	
		긍정	부정	긍정	부정
문1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79.1	20.9	80.6	19.4
문3	남북통일의 필요성	63.2	36.8	60.2	39.8
문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40.7	59.3	38.5	61.5
문5	다문화가정에 대한 친근감	44.7	55.3	44.9	55.1
문8	한국 사회의 갈등 심각성	88.0	12.0	88.2	11.8
문12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	51.5	48.5	46.9	53.1
문13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	53.6	46.4	53.8	46.2
문18	직업 만족도	64.1	35.9	68.3	31.7
문19	직업 추천 의향 (직업 자부심)	52.6	47.4	54.2	45.8
문21	소득(고용/폐업)불안감	77.8	22.2	81.0	19.0
문22	가정생활 만족도	83.0	17.0	85.1	14.9
문28	여성 경제 활동 확대에 대한 인식	93.3	6.7	92.7	7.3
문34	자녀 교육비 부담감	86.4	13.6	87.8	12.2
문38	고령화의 심각성	94.8	5.2	94.2	5.8
문39	저출산의 심각성	93.8	6.2	92.8	7.2
문47	사회 안전 불안감	69.4	30.6	69.9	30.1
문48	행정 서비스 만족도	65.5	34.5	63.0	37.0
문49	복지 서비스 만족도	57.3	42.7	57.8	42.2
문51	여가 생활의 양 만족도	60.0	40.0	63.1	36.9
문52	여가 방식 만족도	58.3	41.7	59.8	40.2
문60	사회적 현안 뉴스 관심도	53.5	46.5	53.8	46.2
문70	한국 정치 상황 만족도	17.7	82.3	17.5	82.5

02

한국사회과학조사(KMOS) 데이터와 언론학 연구

왜 불평등인가?
개인수준에서 바라본 불평등과 '사회건강' 간의 관계

발표: 황선재(충남대)

02.

왜 불평등인가? 개인수준에서 바라본 불평등과 '사회건강' 간의 관계

황선재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1. 들어가는 말

최근 불평등이 화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논의되던 불평등에 대한 이슈, 문제의식이 일반사람들에게도 널리 회자되고 있다. 특히 최근 프랑스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불평등에 대한 저작을 둘러싼 전 세계적 논쟁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불평등 담론이 보편화되고 있다(김종인, 2012; 장하성, 2015; Piketty, 2014).

'성장'위주였던 경제를 둘러싼 담론이 성장의 이면, 혹은 양면과도 같은 분배의 문제, 즉 불평등 문제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18세기 이후 인류가 산업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경제성장은 '발전'과 등치되었고, 20세기 후반 현실사회주의 붕괴이후 대부분의 개인, 국가에게 지상 최대의 가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화, 지구화와 함께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되었으며,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은 좋은 것'이라 인식 역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반복되는 경제위기, 물질적·정신적 빈곤의 증가는 성장과 발전의 문제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불평등의 원인과 그것을 해소하려는 관심과 노력 역시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불평등이 왜 문제인가? 불평등은 해소되어야 하는 나쁜 것인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 관련 담론과 비례하여 불평등이 문제라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지만, 증가하는 불평등이 왜 문제인지, 혹은 불평등은 왜 완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기존의 불평등 관련 연구가 주로 불평등 수준의 측정과 추이, 그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데, 증가하는 불평등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결과 및 함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황선재, 2015).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증가하면 각종 사회문제 및 사회병리의 수준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황선재, 2015; Wilkinson and Pickett, 2009). 일반적으로 불평등이 높은 국가에서는 사회적 신뢰수준, 사회이동 가능성, 교육성취 수준이 낮은 반면, 정신건강 문제, 살인율, 수감률 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구성원 간의 긴장을 높이고, 구성원들 간의 물리적·심리적·문화적 간극을 넓게 만들어 각종 사회문제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특정 사회를 분석단위로 하여 집합적인 수준에서의 불평등과 사회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혹인 지역)에서는 사회문제도 많다'는 식의 집합적인 결론에만 이르고 있다. 따라서 불평등의 결과 및 효과에 대한 관심을 개인수준으로 낮추어, '불평등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불평등의 결과 및 함의에 대한 관심을 지역이나 국가와 같은 집합적인 수준에서 개인적인 수준으로 확장하여, 불평등이 개인의 삶과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본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의 소득과 재산 같은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전반적인 '사회건강' 수준에 대한 인식(예.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 세대 내/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가 개인의 객관적·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보이는 복합적인 사회문제와 갈등의 양상을 불평등과 사회계층의 관점에서 조명해 볼 것이다.

우선 다음 절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개인/사회문제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기존의 연구와 이론들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와 변수들에 대한 측정방식, 분석방법 등을 설명하고, 이어서 경험적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며 불평등 연구에 대한 함의를 토론한다.

▌2. 선행연구, 이론적 배경, 연구질문

1)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개인과 사회에 대한 불평등의 영향과 그 가능성은 다양하지만, 기존의 불평등

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주로 경제적인 영역,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과의 연관 속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불평등은 개인 간의 긍정적인 긴장과 경쟁을 유도하여 개인의 발전 및 전반적인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이라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로 불평등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사회·경제·문화적 거리를 넓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이라는 입장, 또 하나는 불평등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OECD, 2011).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증가하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이라는 결론이 지배적이다(IMF, 2016; Rajan, 2010). 특히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국제통화기금(IMF)마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확장과 이에 따른 불평등의 증가가 각종 사회문제로 귀결되고 있다는 입장으로 전향함으로써, 불평등은 최후의 보루였던 경제성장에 마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IMF, 2016).

경제영역 외에도 정치, 사회, 보건 영역에 미치는 불평등의 영향도 다양하다. 우선 정치영역의 경우, 대표적으로 '중산층 가설'이 존재한다.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중산층들은 이에 불만을 갖게 되고, 이것이 본인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계급/계층 투표를 한 결과 불평등이 정치적으로 해소되리라는 가설인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즉,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투표와 정치행위에는 양극화 현상이 발견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상층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정치의 장이 변화한다는 것이다(Bonica et al., 2013).

다음으로 사회영역의 경우 다양한 분야, 층위에서 불평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논의되고 있다(강철희·이상철, 2013; Putnam, 2001; Wilkinson, 1997). 소득과 재산 등의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면, 이는 자연히 거주지 분리 등의 물리적인 분할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에 더해 계층 간 차별적인 소비패턴은 이들 간 문화적 간극 역시 넓히며, 이러한 요인들이 세대 내에서, 그리고 세대를 거쳐 반복적이고 복합적으로 중첩되면 상이한 계층 간의 심리적 거리마저 멀어지게 된다. 그 결과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 나아가 사회적 응집성은 떨어지게 되며, 본인의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고 본인의 자녀 세대에 대한 미래 전망 역시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사회신뢰 수준이 낮고, 세대 내/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개인이 위치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어떠한 방식을 드러나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보건에 대한 불평등의 영향은 Wilkinson과 Pickett(2009)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본인의 상대적 지위에 대해 의식하게 하고, 이는 한 사회 내에서 보다 나은 지위획득을 위한 지위경쟁(status competition)을 유발한다. 이러한 지위획득경쟁의 게임에서 승자는 승자대로, 그리고 패자는 패자대로 다양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결과 불평등이 높은 사회에서는 우울증, 자살 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만 등의 신체적 건강문제 수준 역시 높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 불평등의 핵심 원인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Link and Phelan, 1995),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는 건강 불평등의 증가로 쉬이 예측할 수 있다.

불평등, 그 중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의 결과와 함의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불평등의 핵심은 소득·재산과 같은 경제적 불평등이며, 경제적 불평등은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건 각 영역에서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는다. 결국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는 것이 사회구성원들 간의 거리와 간극을 넓힐 수 있는 자원, 혹은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문제 및 건강문제의 분포가 그 간극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스펙트럼이라고 본다면, 경제적 불평등과 그 수준의 증가는 해당 사회, 나아가 해당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문제제기 및 연구질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평등의 결과 및 함의를 다루는 기존의 연구는 주로 집합적인 수준(예. 국가 또는 지역)에서 측정된 불평등 수준과 '사회적 위험', 혹은 '사회건강'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집단 수준에서 불평등도와 사회문제의 수준을 측정하여, 불평등이 높은 지역에서 사회문제 혹은 사회위험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불평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불평등이 가져다줄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와 함의를 집합적인 수준에서 보여줌으로써,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전 사회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불평등의 결과와 함의에 대한 관심의 확산을 위해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불평등이 사회구성원, 즉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즉 불평등의 결과 및 효과에 대한 관심을 집합적인 수준에서 개인수준으로 낮추어 불평등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는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에

대한 경험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불평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경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또 하나의 목적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측정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불평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류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개인단위에서 측정한 불평등 수준'이라는 개념의 모호함 때문일 것이다. 즉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측정도구, 특히 개인단위에서 측정된 불평등 수준이라는 측정도구가 필요한데, 이는 개념적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불평등이라는 것은 복수의 개인 간에 존재하는 특정 값(예: 소득이나 재산)들의 분산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불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도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개인단위에서 측정한 불평등 수준'을 개념화, 조작화하여 경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의 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개인수준에서 측정된 경제적 불평등도에 대한 인식이, 마찬가지로 개인수준에서 측정된 사회적 신뢰와 사회이동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경험적으로 살펴본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불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측정가능하다. 따라서 각 개인이 사회전반에 대해 느끼는 경제적 불평등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측정하여 이를 앞서 필요성을 제기한 '개인단위에서 측정한 불평등 수준'의 측정도구로, 그리고 주요 연구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불평등이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변수로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 세대 내/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 등을 선택하였는데, 이 두 변수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고, 사회이동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혹은 '사회건강'이 높은 수준이라고 정의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3. 자료, 측정,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사회과학조사(Korea Multimode Open Survey for Social

Sciences, 이하 KMOS) 2016년 1차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KMOS는 한국연구재단토대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충남대학교 아시아여론연구소에서 기획, 조사, 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2016년에 첫 조사가 실시되었다. 국가·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사회과학 연구의 적실성 제고와 미래 사회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앙할 수 있는 학술조사연구 환

표 1-1 기술통계

변수명	응답범주	평균또는% (n=2000)
경제적 평등에 대한 인식	0~10점	4.50
사회적 신뢰: 한국사회	0~10점	5.52
사회적 신뢰: 한국인	0~10점	5.78
사회이동 가능성: 세대내	높아질 것	52.46
	높아지지 않을 것	47.54
사회이동 가능성: 세대간	높아질 것	55.17
	높아지지 않을 것	44.83
성별	남성	49.66
	여성	50.34
연령	18-29세	18.85
	30-39세	17.81
	40-49세	20.70
	50-59세	19.61
	60세이상	23.03
교육수준	중졸이하	11.48
	고졸	38.47
	대재이상	50.05
혼인상태	미혼	22.21
	기혼	72.44
	이혼/사별	5.35
지역	특별/광역시	45.69
	동부	34.18
	읍면부	20.13
가구소득	300만원미만	24.78
	300~500만원	48.10
	500만원이상	27.12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31.83
	중층	33.56
	상층	34.61
주관적 행복감	1~4점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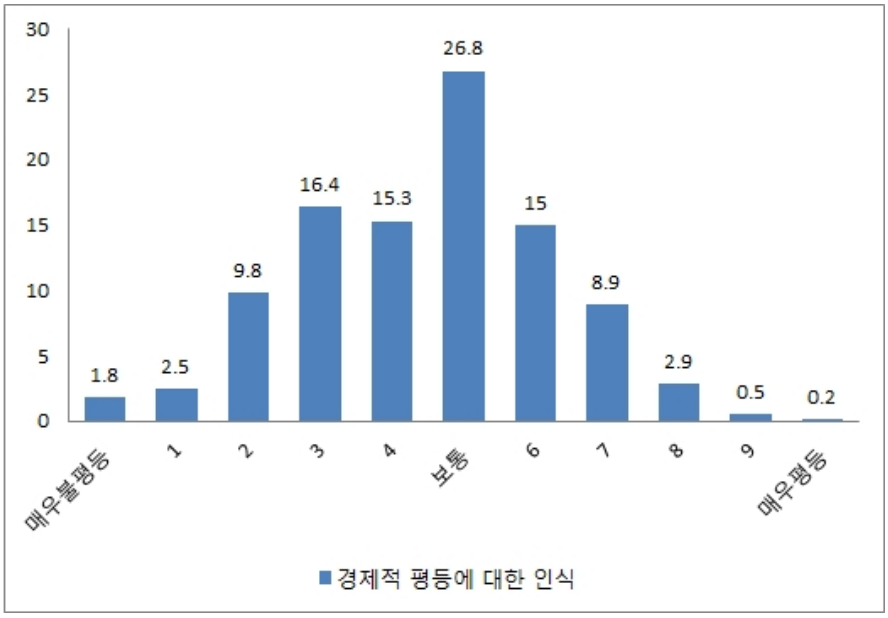
경 및 토대를 마련하고, 과학적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기술적 전문성 등으로 인해 과학적 조사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회과학분야 일반연구자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학술패널을 구축 및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1] 조사 첫 해인 2016년에는 3차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는데, 초기 패널구축을 위하여 1차 조사는 확률표본추출에 의한 대면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2차와 3차 조사는 구축된 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조사(와 필요시 부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본 연구에 활용된 2016년 1차 조사는 일반적인 사회과학조사에 포함되는 기본항목과 사회지표 문항들, 그리고 특별주제 문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2] 그 중에서 본 연구에서 핵심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사회적 신뢰수준, 사회이동 가능성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신뢰/갈등/계층의식' 분야에 포함된 문항들이 분석의 중심이 되며, 분석표본의 수는 2,000명이다.

2) 측정 및 기술통계

<표 1>은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의 측정방식과 기술통계를 포함하고 있다. 각 변수별 변수명과 응답범주, 평균(연속변수의 경우) 또는 백분율(범주형 변수의 경우)이 포함되어 있으며, 표에 포함된 모든 문항에 응답한 2000명의 응답표본을 분석

그림 1-1 경제적 평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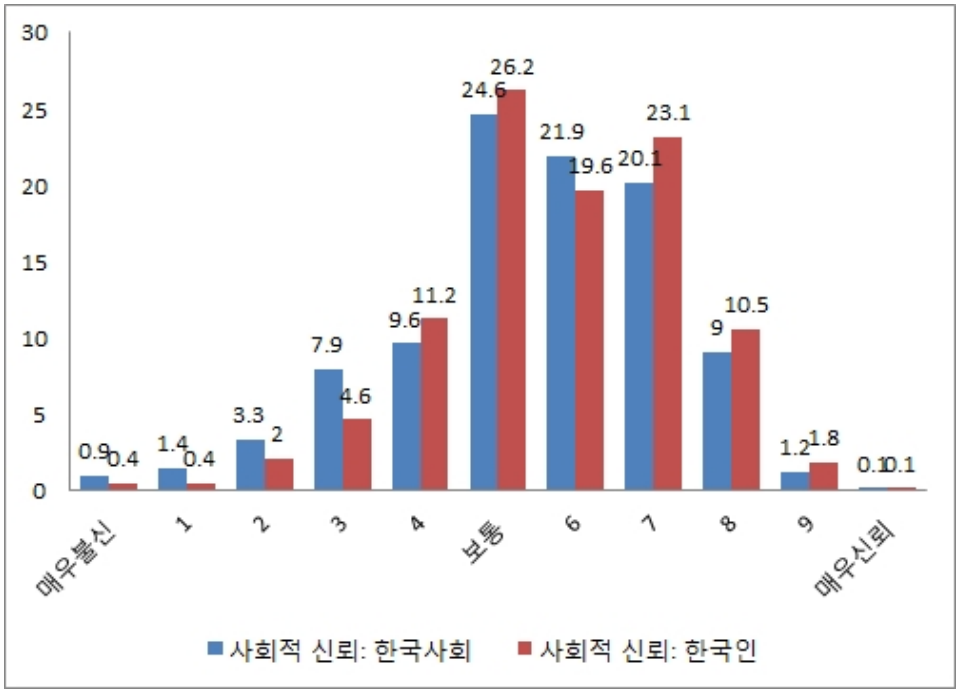
1) 자세한 내용은 충남대 아시아연론연구소에서 발간한 <2016년 한국사회과학조사 결과보고서> 참조.
2) 구체적으로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국가관/민족, 사회신뢰/갈등/계층의식, 국가경제·가계·직업인식, 가족/성역할, 자녀/교육, 고령화/저출산, 심리적 충족감, 생활환경, 미디어/소통, 정치/이념 등의 분야별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 결과이다.

우선 본 연구의 독립변수 격인 '한국사회 경제적 평등에 대한 인식' 변수는 "귀하는 우리 사회의 소득 및 재산 등 경제력 수준이 어느 정도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평등하지 않다'에 0점을 주고, '매우 평등하다'에 10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로 측정되었다. 이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은 4.5점으로, 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 다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존재하며, 구체적인 점수별 응답분포는 <그림 1>과 같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변수는 크게 두 종류인데(사회적 신뢰, 사회이동 가능성), 각 변수는 두 개의 하위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회적 신뢰의 경우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와 한국인에 대한 신뢰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의 경우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믿을 수 없다'에 0점을 주고, '매우 믿을 수 있다'에 10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한국인에 대한 신뢰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매우 믿을 수 없다'에 0점을 주고, '매우 믿을 수 있다'에 10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로 측정되었다. 다시 <표 1>을 보면,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는 평균 5.52점인데 반해,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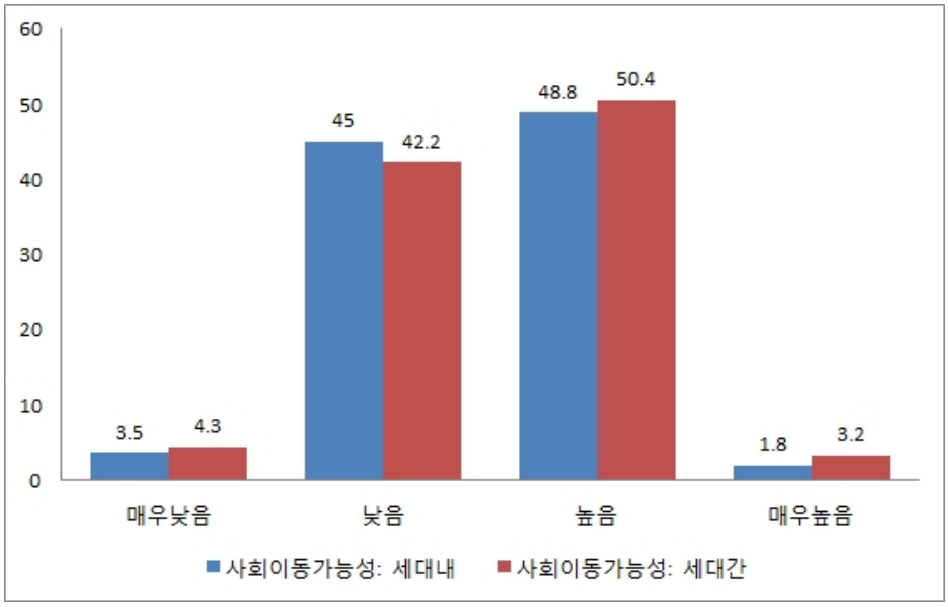
그림 1-2 사회적 신뢰: 한국사회 & 한국인



평균 5.78점으로 한국사회보다는 한국사람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각 변수의 구체적인 점수별 응답분포는 <그림 2>와 같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사회이동 가능성' 역시 응답자 본인(세대)의 사회이동 가능성을 묻는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과 응답자 자녀세대의 사회이동 가능성을 묻는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으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은 "우리 사회에서 개인이 노력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높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 본인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반 이상이 사회이동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대답했으나, 그 비율은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55.17%)이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52.46%) 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나머지 통제변수들(인구학적 변수, 소득/계층관련 변수, 주관적 행복감 등)에 대한 기술통계 역시 <표 1>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1-3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세대 내 & 세대 간



3) 분석방법

우선 핵심 연구변수인 '한국사회 경제적 평등에 대한 인식' 변수와 다른 주요 변수들, 특히 주관적·객관적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변수와의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는데, 종속변수를 연속변수로 간주

할 수 있는 경우(한국사회/한국인에 대한 신뢰)에는 선형회귀분석을, 종속변수가 이항변수로 측정된 경우(세대 내/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에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이항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각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는 응답자의 '경제적 평등'에 대한 인식이며, 인구학적 변수, 가구소득 수준, 주관적 계층 의식, 주관적 행복감 등이 통제된 상태에서 모형추정이 이루어졌다.

▌4. 결과

1) 교차분석

본격적인 회귀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한국사회 경제적 평등에 대한 인식'변수와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 그리고 객관적 계층의 대리변수라고 볼 수 있는 '가구소득' 변수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한다.[3] 우선 <표 2>는 경제적 평등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 계층의식과 어떠한 연관 속에 있는지 보여주는데, 두 변수 사이에는 아주 강한 상관관계, 즉 본인의 계층이 높다고 판단할수록 한국사회도 경제적으로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예컨대 본인을 하층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경우 77.01%가 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6.61%만이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승할수록 점점 뒤집어져, 본인을 중층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평등하다'가 39.01%, '평등하다'가 14.8%, 그리고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경우 23.56% 대 58.05%로 하층과는 정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교차분석의 편의를 위해 원래 연속변수인 '경제적 평등에 대한 인식' 변수를 세 개의 집단('불평등하다'(0~4점), '보통이다'(5점), '평등하다'(6~10점))으로 분류한 뒤,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2 교차분석: 주관적 계층의식 & 경제적 불평등 인식

	불평등하다	보통이다	평등하다	합계
하층	489	104	42	635
	77.01	16.38	6.61	100
중층	261	309	99	669
	39.01	46.19	14.8	100
상층	164	128	404	696
	23.56	18.39	58.05	100
합계	914	541	545	2,000
	45.7	27.05	27.25	100

다음으로 가구소득과 경제적 평등 인식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3>), 전반적으로 앞서 살펴 본 주관적 계층의식과의 교차분석과 유사한 패턴이 발견되지만 그 강도의 정도는 조금 더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 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 중에서도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19.46%)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 중에서도 '불평등하다' 생각하는 비율(40.15%)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이다.

표 1-3 교차분석: 객관적 계층(가구소득) & 경제적 불평등 인식

	불평등하다	보통이다	평등하다	합계
300만미만	268	121	94	483
	55.49	25.05	19.46	100
300~500만	426	277	266	969
	43.96	28.59	27.45	100
500만이상	220	143	185	548
	40.15	26.09	33.76	100
합계	914	541	545	2,000
	45.7	27.05	27.25	100

이와 같은 교차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관적 계층의식이 객관적 계층을 나타내는 가구소득보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더 강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다른 혼동변수를 통제하기 전 기초적인 분석결과이므로 회귀분석과 같은 보다 면밀한 분석 작업이 요구된다.

2) 회귀분석

<표 4>는 네 가지 회귀모형의 분석결과를 담고 있다. 우선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와 한국인에 대한 신뢰는 각 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선형회귀모형의 추정결과이고,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은 이항로짓모형의 추정결과이다. 추정된 회귀계수 중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진하게 표시되어 있다.

우선 사회적 신뢰관련 변수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공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경제적 평등에 대한 인식 변수는 한국사회와 한국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평등인식 변수의 한국사회 신뢰수준에 대한 계수는 0.319로, 경제적 평등인식 문항에 대한 응답이 1점 높아질수록 한국사회 신뢰수준은 0.319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표 1-4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신뢰(Linear)		사회이동가능성(Logistic)	
	한국사회	한국인	세대 내	세대 간
경제적 평등인식	**0.319**	**0.200**	**0.278**	**0.126**
여성	-0.047	0.014	-0.060	0.099
연령 (기준:18-20대)				
30대	-0.034	-0.165	-0.372	-0.254
40대	0.274	0.223	-0.263	0.018
50대	0.182	0.088	-0.215	0.012
60대+	0.112	0.268	-0.092	0.259
교육수준 (기준:중졸이하)				
고졸	**-0.324**	-0.076	-0.159	-0.051
대재이상	**-0.433**	-0.036	-0.207	0.164
혼인상태 (기준:미혼)				
기혼	0.208	**0.317**	0.152	**0.440**
이혼/사별	0.154	0.171	0.109	0.408
지역 (기준:특별/광역시)				
동부	-0.055	0.028	0.062	**0.231**
읍면부	**-0.328**	-0.076	-0.253	-0.214
가구소득(기준:300만미만)				
300~500만	0.051	-0.009	0.171	0.119
500만이상	0.038	0.008	0.026	0.080
주관적계층 (기준:하층)				
중층	**0.274**	**0.508**	**0.368**	**0.380**
상층	**0.757**	**1.220**	**0.609**	**0.737**
주관적행복감	0.043	0.021	**0.472**	**0.367**
상수	**3.779**	**4.493**	**-2.210**	**-2.446**

다. 또한 경제적 평등인식 변수의 한국인 신뢰수준에 대한 계수는 0.200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보다 계수 값은 낮지만, 여전히 통계적·실질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즉, 경제적 평등정도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신뢰수준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인식할수록, 한국사회와 사람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 중에서는 주관적 계층인식 변수의 효과가 두드러진다. 스스로를 하층보다는 중층, 또는 상층으로 인식할수록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한국인에 대한 신뢰수준 역시 높으며, 그 효과의 크기는 한국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가 더 크게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응답자의 성별, 연령, 가구소득, 주관적 행복감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교육수준 변수는 한국사회를 종속변수로 했을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다음으로 경제적 평등에 대한 인식이 응답자의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이 두 모형의 경우 이항로짓모형 분석결과이므로, 앞선 두 모형의 계수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함에 유의). 전반적인 분석결과는 사회적 신뢰수준에 대한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즉, 다른 공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경제적 평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사회이동 가능성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한국사회의 소득과 재산이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인식할수록 세대 내 뿐 아니라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 역시 높을 것이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주관적 계층의식 역시 두드러진 효과를 보여, 본인의 사회적 계층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이동 가능성 역시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신뢰에 대한 모형과 다른 점은 주관적 행복감 변수의 효과인데, 앞선 사회적 신뢰 모형에서는 주관적 행복감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은데 반해, 사회이동 가능성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 본인이 스스로를 삶을 긍정적이고 행복하다고 판단할수록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평가 역시 긍정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토론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평등에 대한 일반적, 학술적 논의 역시 증가하고 있다. 불평등에 대한 찬반입장을 떠나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불평등은 개인이나 사회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최근의 관심들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증가하는 불평등이 왜 문제인지, 불평등은 왜 완화되어야 하는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학술적, 경험적 연구 작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이나 국가와 같은 집합적인 수준이 아닌 개인수준에서 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가 보다 많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불평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관련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불평등 관련 변수를 개인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으로 조작화하고, 이 변수가 해당 개인의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와 사회이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현재 한국사회의 소득과 재산 분포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한국사회와 개인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세대 내/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 역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고, 본인과 자녀세대의 사회이동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개인들이 많은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볼 수 없다는 전제아래, 불평등의 증가와 이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예시하였다.

그러나 불평등의 결과와 함의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 즉 개인수준에서 불평등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보다 효과적인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불평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발굴하며,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과 자료의 개발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철희·이상철. 2013. “한국인의 보편적 신뢰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4):1-28.

김종인. 2012.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동화출판사.

장하성. 2015. 왜 분노해야 하는가: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헤이북스.

황선재. 2015.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건강·사회문제지수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1):5-25.

Bonica, A., McCarty, N., Poole, K. T., and H. Rosenthal. 2013. “Why Hasn’t Democracy Slowed Rising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3):103-124.

Link, B. G. and J. Phelan. 1995. “Social Conditions As Fundamental Causes of Diseas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Extra Issue):80-94.

IMF. 2016. “Neoliberalism: Oversold?” *Finance & Development* 53, No.2.

OECD. 2011.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Publishing.

Piketty, T.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Belknap Press.

Putnam, R. D. 2001. “Social Capital: Measurement and Consequences.” *ISUMA: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2(1):41-51.

Rajan, R. G. 2010. *Fault Lines: How Hidden Fractures still Threaten the World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Wilkinson, R. 1997. “Comment: Income, Inequality, and Social Cohes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9):1504-1506.

Wilkinson, R. and K. Pickett. 2009.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NY: Bloomsbury Press.

03

한국사회과학조사(KMOS) 데이터와 언론학 연구

뉴스 이용의 인터넷 의존 심화 및
뉴스매체 레퍼토리 증가에 대한 분석

발표: 이범준(서울대)

03.

뉴스 이용의 인터넷 의존 심화 및 뉴스매체 레퍼토리 증가에 대한 분석

이범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1. 서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를 접하게 되고, 반대로 신문, 잡지, 방송 등 전통적 매체를 통한 뉴스 이용은 감소하고 있다(Newman, Levy & Nielsen, 2015). 이러한 양상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매체의 확산에 의해 보다 심화되고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매체의 특성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 습득 및 대화 빈도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뉴스 이용 연구의 증가는 "인터넷"이라는 뉴스 유통 및 공유 수단이 가진, 전통적 매체와는 확연히 다른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뉴스 유통의 측면에서 인터넷은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성, 수용자 참여적 뉴스 이용, 뉴스 생산 및 유통 참여의 용이성, 정보 양의 방대함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성태·이영환, 2006; 김은미·양정애·임영호, 2012; 김은미·이주현, 2011; 장병희·남상현, 2012)). 여기에 모바일과 웹의 결합은 뉴스 이용의 편재성, 이동성, 속보성(뉴스 알림 기능) 등을 강화시켰고, 이는 뉴스 이용 빈도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인터넷 뉴스 유통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포털 사이트나 서구에서 최근 급신장하고 있는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 등이 제공하는, 여러 다른 언론사의 뉴스를 편집해 배포하는 서비스는 언론사 브랜드에 대한 주목성 약화, 뉴스 편집인 역할 축소, 개별 뉴스 아이템에 대한 직접적 소비 증가(헤드라인 리스트 열람 횟수 감소) 등의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Newman, Fletcher, Levy & Nielsen, 2016). 이러한 인터넷 및 모바일 뉴스의 매체적 특징은 유통되는 뉴스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도 제기되어 왔다(정회경·김사승, 2007; 정일권·김예란, 2010).

요컨대 오늘날 뉴스 이용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자리잡은 인터넷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의 흐름을 전통적 매체 시대의 그것과는 다르게 변화시켰고, 저널리즘의 속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인터넷 뉴

스 이용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그것이 세대, 성별, 지역, 소득수준, 학력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 걸음 나아가 전통적 매체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뉴스를 접하게 되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사회적 함의를 갖는지 탐구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뉴스가 유통, 공유되는 현장에 대한 내용 분석 및 담론분석이나 뉴스 이용자와의 심층 인터뷰 자료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표하는 표본에 대한 사회 조사 데이터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전국민의 뉴스 미디어 이용에 대한 조사 데이터는 매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KISDI 등에서 생산되어 왔다. 이는 미디어 이용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미디어 변인 외에 다른 연구주제 변인들은 조사되지 않아 미디어 이용 변화의 함의를 탐구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2003년부터 2014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KGSS 조사의 경우, 미디어 이용 변인이 2-4 문항 정도로 간략하게 조사되어[4] 뉴스 미디어 이용의 전반적 양상을 다루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들은 뉴스 미디어 이용에 관한 변인과 이와 관련된 연구 주제 변인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온라인 조사회사의 패널로 가입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KMOS 데이터는 12개의 비교적 많은 미디어/소통 변인을, 다양한 연구주제 변인과 함께 다루면서 전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뉴스 미디어 이용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함의를 탐구하는데 적절하다. 이 조사 데이터로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의 증가가 어떤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심리적 함의를 갖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될 독립 변인은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의 양일 것이다. 그런데 단순한 인터넷 뉴스 이용의 양은, 뉴스 이용 수단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문화적·심리적 변화를 탐구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오늘날 인터넷으로 뉴스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전통적 매체를 통한 뉴스 이용 또한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인터넷 뉴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과 전통적 매체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정치적 의제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때 인터넷 뉴스 이용량 변인은 의미 있는 설명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뉴스 이용 연구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인터넷 뉴스 이용이 전통적 매체 뉴스 이용과 상보적으로 사용될 것인가, 아니면 전자가 후자를 대체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Althaus & Tewksbury, 2000).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인터넷 뉴스 이용을

4) KGSS에서도 때로 미디어 이용에 관해 많은 문항이 조사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미디어/소통 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사회지표 문항이 아니라, 특정 미디어 이용(예를 들면, SNS)에 관해 특정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독립적으로 고찰하기보다는 다른 매체를 통한 뉴스 이용과의 연관성 속에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터넷 뉴스 이용을 전통적 뉴스 이용과의 연관성 속에서 접근하는 한 방법으로 '하루 이용 뉴스 매체수'와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라는 척도를 제안하고, 이를 '인터넷 뉴스 이용' 변인과 함께 사용하여 한국의 전체적인 뉴스 이용 현황을 보다 정교히 기술하고, 인터넷 의존적인 뉴스 이용이 사회문화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변인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은 다음과 같이 측정되거나 산출되었다.

'인터넷 뉴스 이용'은 지난 일주일 중 인터넷을 이용해 정치, 경제, 사회적 현안에 관한 뉴스를 접한 날짜수로 측정되었다. 이때 인터넷 뉴스 이용은 인터넷 언론사 기사를 본 것만이 아니라,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블로그 등 모든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한 것을 포괄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는 뉴스 이용자가 얼마나 다양한 매체를 많이 이용하여 뉴스를 접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합성한 지수이다. 그것은 하루 평균 이용한 뉴스매체 유형의 수를 나타낸다. 본 조사는 인터넷 외에도 신문, 잡지, TV방송, 라디오방송 등 총 5개 매체 각각에 대해 지난 일주일 중 뉴스 이용일을 조사하였다[5].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는 매체별 뉴스 이용일을 모두 합산한 뒤, 이를 7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되었다.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는 정치, 사회적 현안에 관한 뉴스나 의견을 접하는 채널이 인터넷에 편중되어 있는 정도를 말하며, 지난 1주일 중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이용한 날짜수를,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매체별 뉴스 이용일의 총합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되었다. 이 수치는 개인이 뉴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한 매체 중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오직 인터넷만을 이용한 경우 1이,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0이 부여되며 인터넷과 다른 매체를 이용한 날짜수가 같으면, 0.5가 된다.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 =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일(1주당) / 매체별 뉴스 이용일의 총합

5) 본 연구는 인터넷 뉴스 이용을 모두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의 뉴스매체로 다루었다. 그러나 인터넷 뉴스 서비스나 뉴스 이용은 매우 다양하다. 포털 사이트, 언론사 웹 사이트, 소셜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등 메신저, 뉴스 앱, 이메일, 뉴스 알림 등을 통한 뉴스 이용은 그 방식도 다르고, 때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내용도 다르다. 이중 뉴스 생산, 유통, 수용 방식에서 차별적인 성격을 갖는 온라인 뉴스 이용 방식을 하나의 독립적인 뉴스 채널로 다루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는 인터넷 뉴스 채널이 다른 전통적 뉴스 채널을 대체하는 정도를 잘 보여주는 지수라 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 이용 회수가 같더라도, 다른 매체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과 인터넷만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나 의견, 사회적 의제 등이 다를 수 있고, 다른 "상상적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다. 어떤 뉴스매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지각, 정치적 태도에 관해 받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순수한 인터넷 뉴스이용 빈도보다, 인터넷 의존도가 인터넷 매체의 독특한 영향을 보다 잘 보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적 수준에서 인터넷 뉴스채널 이용과 전통적 뉴스채널 이용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 지수는 인터넷 뉴스 이용만의 영향을 살펴보는데 보다 유용할 수 있다.

2016년 KMOS 데이터를 통해 위 세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2-1 뉴스 이용 관련 변인과 여가 및 문화활동 변인 간의 부분 상관관계

변인	하루이용 뉴스매체수	인터넷 뉴스 이용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	1.00		
인터넷 뉴스 이용	.64***	1.00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	.05*	.71***	1.00

수치는 퍼어슨 상관계수, N=2000

* p<.05, ** p<.01, *** p<.001

인터넷 뉴스 이용은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 및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와 각각 r=.64와 r=.71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후자의 두 변인이 인터넷 뉴스 이용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임을 의미한다. 특히,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의 경우, 5개 매체 뉴스이용일을 합산한 수치임에도 인터넷 뉴스 이용과 상관관계가 큰 것은, 다른 매체에 비해 인터넷이 응응답자 간 뉴스이용일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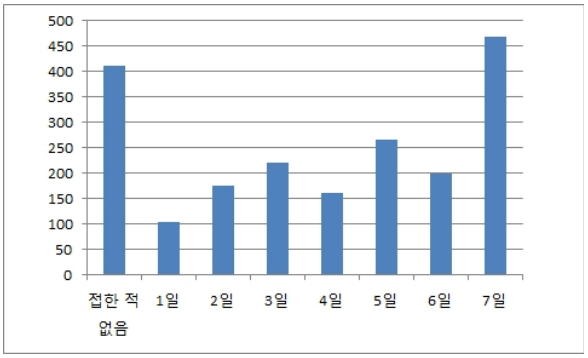
하루이용 뉴스매체수와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는 전자의 값이 후자의 분모가 되는, 반비례 관계에 있지만, 둘 모두 인터넷 뉴스 이용일이 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둘 간의 상관관계는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점에서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와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는 인터넷 뉴스 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서로 다른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로 볼 수 있다. 개념적으로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는 인터넷과 전통적 뉴스매체가 함께 사용되는 양상을,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는 인터넷이 전통적 뉴스매체를 대체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3. 한국의 인터넷 뉴스 이용 관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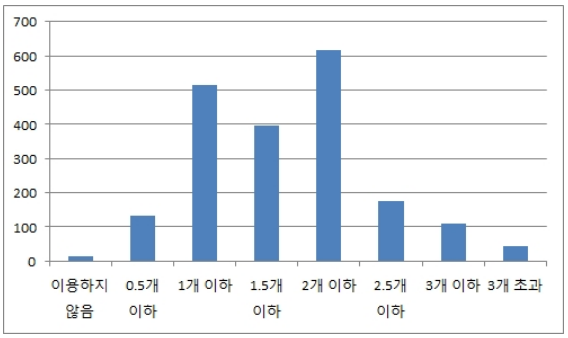
2016년 한국인의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 빈도는 1주일에 평균 3.77일(*SD*=2.61)로 나타났다. 1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해 본 사람이 전체의 79.5%였고, 매일 이용하는 사람도 전체의 23.4%나 되었다. 특히 40대 이하는 90% 이상이 1주일에 1회 이상 인터넷 뉴스 이용을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20대 이하 94.7%, 30대 94.7%, 40대 90.6%), 이미 중년층까지 인터넷이 뉴스 이용의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지난 1주일 동안 인터넷 뉴스 이용을 하지 않은 사람이 55.7%나 되었다.

그림 2-1 인터넷 뉴스 이용 빈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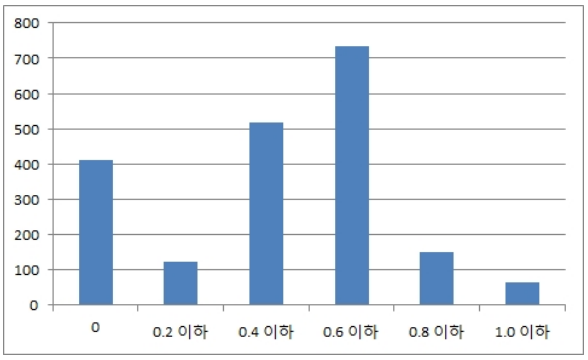
하루 중 뉴스 이용을 위해 접속한 매체 유형의 수를 나타내는 '하루 이용 뉴스매체 수'는 평균 1.48개(*SD*=0.69)로 나타났다. 이는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인터넷 등 5개 뉴스 매체 중 하루에 적어도 1가지 매체를, 이틀에 한번씩은 2개 매체를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1.5개~2개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전체의 3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0.5개~1개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다(25.7%).

그림 2-2 하루 이용 뉴스 매체 수의 빈도 분포



마지막으로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는 평균 0.36(*SD*=0.24)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체별 뉴스 이용일 중 1/3 이상을 인터넷이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0.4~0.6 이하가 36.6%로 가장 많고, 0.2~0.4 이하가 26.0%로 그 다음이었다. 전체의 10.7%는 인터넷 뉴스 매체 이용일이 전체 뉴스 매체 이용일의

그림 2-3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의 빈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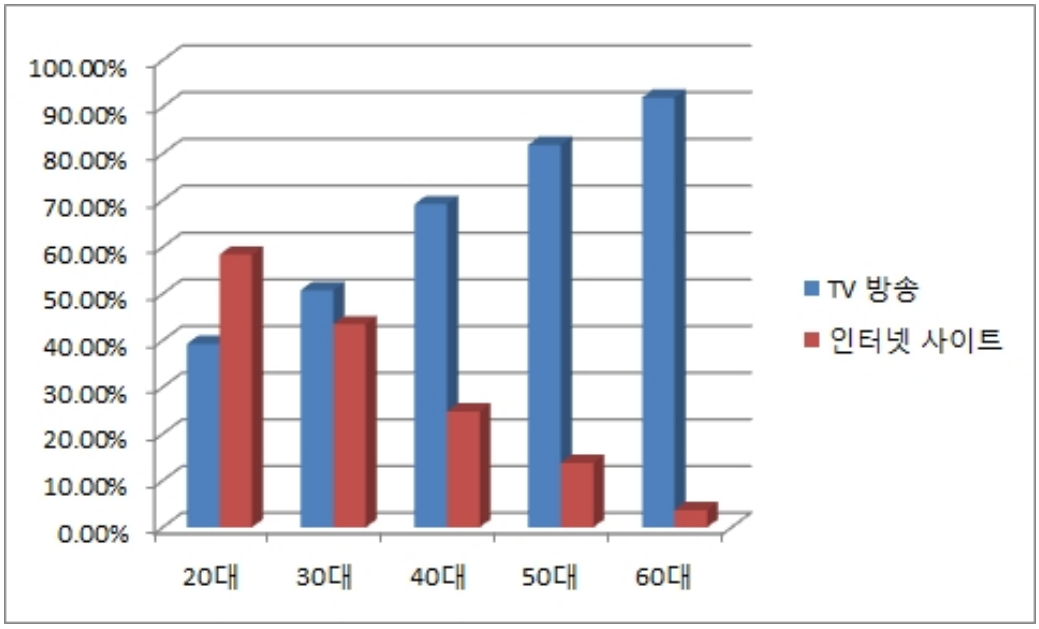
60% 이상을 차지하여 인터넷 중심의 뉴스 이용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뉴스 매체로 전혀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20.5%였다.

4. 세대별 뉴스 이용의 차이

세대별로 이용하는 뉴스 매체가 다른 것은 인터넷 보급 이후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16년 한국의 KMOS 조사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젊은 세대일수록 인터넷을 사회적 현안에 관한 주이용 소통매체로 선택한 비율이 높아지고, TV 방송을 선택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특히 20대 이하 청년 세대는 1순위 주이용 소통매체로 인터넷 사이트를 58.4% 선택하여 TV 방송(39.3%)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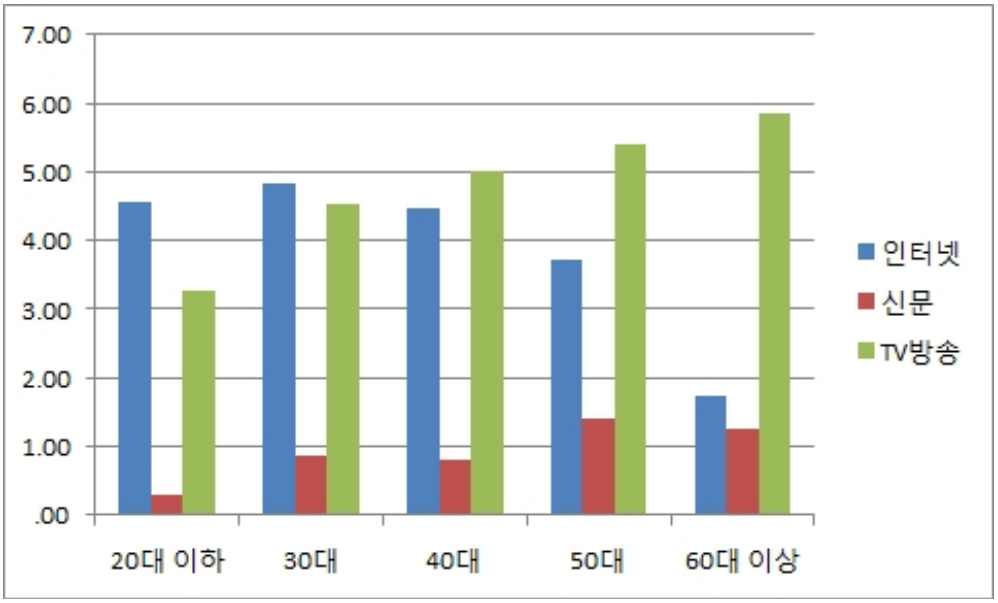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주요 뉴스매체로서의 TV 방송의 독보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음을

그림 2-4 세대별 뉴스 주이용매체 선택 비율



보여준다. 현재 TV 방송 채널은 사회적 현안에 대해 의견이나 정보를 얻는 1순위 소통채널로 전체의 68.0%가 선택할 정도로 뉴스 유통의 중심 채널로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포털, 언론사 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SNS 포함)을 1순위 뉴스 매체로 선택한 사람은 27.5%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인터넷 이용에 익숙한 세대가 성인이 될수록 인터넷의 이용율은 높아지고 TV방송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세로라면 인터넷이 뉴스의 제1원천으로 이용되고, TV 방송이 이를 보완하는 뉴스 이용 행태가 보다 일반화될 수 있다. 두 매체의 뉴스 및 의견 전달 방식이 다르므로, 이러한 변화가 정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나 광고 및 생활 정보의 공유 방식에 가

그림 2-5 세대별 뉴스매체 이용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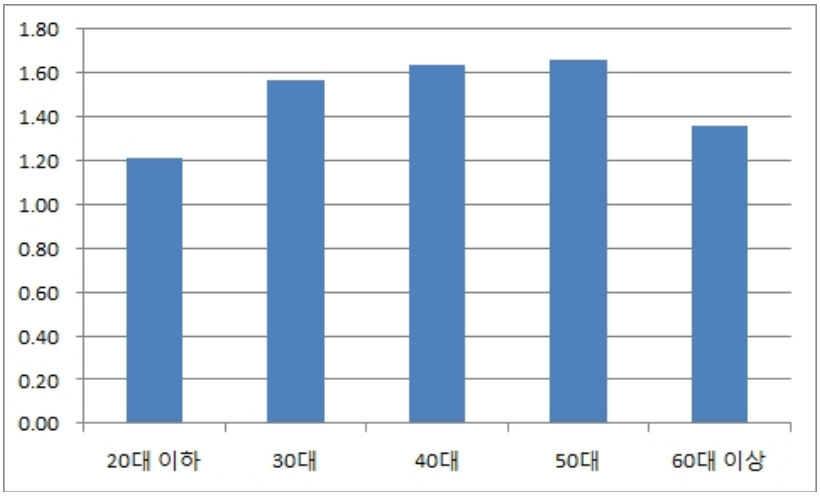


져올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일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높아지고, 전통적 매체 이용률이 낮아지는 패턴은 매체별 뉴스 이용일에서도 나타난다. 20대 이하와 30대의 인터넷 뉴스 이용일은 각각 4.56일, 4.83일에 이르는데 반대 60대 이상은 1.74일에 불과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TV방송 이용일은 5.84일로 매우 높았다.

각 뉴스매체 이용일을 합산한 뒤, 7(1주일)로 나눈,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를 살펴보면, 40-50대 중장년층이 보다 다양한 매체를 뉴스 이용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가 1.66개의 매체를 이용하여 가장 많았고, 40대, 1.63개, 30대

그림 2-6 세대별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



1.56개 순이었다. 60대 이상(1.36개)과 20대 이하(1.21개)에서 상대적으로 뉴스매체 이용의 다양성이 낮게 나타났다.

세대별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는 대체로 사회적 현안에 관한 뉴스에 대한 관심도로 설명될 수 있다. KMOS 조사에 따르면, 50대의 뉴스 관심도가 2.67(4점 척도)로 가장 높고, 40대 2.59, 30대 2.54, 20대 2.23로 젊은 세대일수록 낮아지는 분포를 나타냈다. 사회적 현안에 대한 뉴스에 관심이 많을수록 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뉴스에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대의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가 적은 것은 이 세대의 뉴스 관심도가 가장 낮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60대 이상은 2.66으로 50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뉴스에 관심이 있지만,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는 두 번째로 적었다. 이는 이 세대 중 많은 사람들(55.7%)이 아직 인터넷을 뉴스 이용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50대의 경우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이틀 중 하루 이상(3.72일) 인터넷으로 뉴스를 이용하지만, 60대 이상은 인터넷 뉴스 이용일이 1.74일로 5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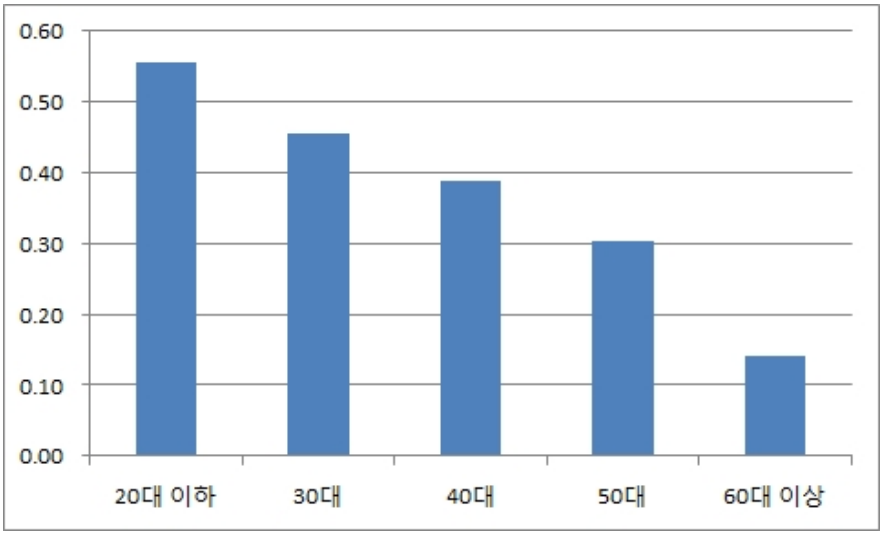
표 2-2 세대별 뉴스 관심도

세대	뉴스 관심도
20대 이하	2.23
30대	2.54
40대	2.59
50대	2.67
60대 이상	2.66
평균	2.54

결론적으로 인터넷의 일반화는 뉴스에 관심이 있는 수용자들에게 복수의 뉴스매체를 이용하도록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단순화하면 뉴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전통적 뉴스매체를 이용하는 것에 더하여 인터넷 뉴스매체도 추가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보다 정확히는 신문과 같은 전통적 뉴스매체 이용일의 감소폭보다 인터넷 뉴스매체 이용일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50대처럼 전통적 뉴스매체 역시 여전히 이용하는 뉴스이용관행이 남아 있을 때 나타나는 양상일 것이다. 50대는 특히 신문을 1주일 중 평균 1.39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대(0.29일)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신문과 방송을 통한 뉴스 이용에 익숙했던 세대들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뉴스매체를 받아들이는 만큼 뉴스 이용의 다양성이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상황에서 신문과 방송, 인터넷은, 뉴스의 형식이나 의제, 관점, 정보/의견의 비율 등의 측면에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체의 다양성은 수용하는 뉴스 내용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다른 한편, 뉴스매체의 다양성은 역설적으로 전통적 뉴스매체의 영향력을 유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뉴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전통적 뉴스매체를 포함한 복수의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면서, 또한 인터넷 공간의 중요한 뉴스 매개자 또는 생산자이기도 하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 인터넷 커뮤니티, 메신저 등을 통하여 활발

그림 2-7 세대별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



히 뉴스 공유, 재가공 등을 하고 있다. 이들이 온라인 공간의 소통 흐름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또한 전통적 뉴스 흐름에도 발을 걸치고 있다는 것은 전통적 언론사의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온라인 공간에 미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전통적 뉴스 매체를 이용하는 습관을 가져본 적이 없는, 세대들이 점점 더 사회에 많이 진출한다면, 인터넷 보급이 가져온 뉴스매체의 다양성은 사라질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20대처럼 신문, 잡지, 라디오 등 기타 매체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방송도 50대의 60%정도 이용한다면, 뉴스매체 이용의 다원성은 현재보다 훨씬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세대별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는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젊은 세대일수록 뉴스매체 이용일 중 인터넷 이용일의 비중이 크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비중이 작아지는 패턴이 나타났다. 20대 이하는 인터넷 뉴스 이용일이 전체 뉴스 이용일의 절반 이상(0.55)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문, 잡지, 방송을 이용하여 뉴스를 접한 날을 모두 합한 것보다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한 날이 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반면 60대 이상은 인터넷 의존도가 0.14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인터넷 이용일이 타매체 이용일 총합의 1/7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이밖에 30대는 0.45, 30대는 0.39, 50대는 0.30으로 나타났다.

단순 인터넷 뉴스 이용일로는 30대(4.83일)가 20대(4.56일)보다 좀 더 많고, 20대와 40대(4.48일)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인터넷으로의 편중성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증가하였다. 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문과 방송을 통한 뉴스 이용의 습관에 대한 기억이 보다 뚜렷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TV 뉴스를 보거나,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펼쳐 읽는 습관, 차에서 라디오로 뉴스를 찾아듣

는 습관 등 전통적 뉴스이용 시대의 생활습관은 연령대에 비례하여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인터넷 이외의 타 뉴스매체의 이용을 증가시켜, 인터넷 의존도를 낮추었을 것이다.

젊은 세대일수록 사회적 현안에 관한 뉴스에 관심이 없다는 것도, 젊은 세대의 높은 인터넷 의존도를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뉴스에 관심이 없을수록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이나 PC 외의 다른 수단을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약해질 것이다.

전통적 뉴스매체 이용 루틴이 사라져서 나타난 것이듯, 뉴스 관심도를 경유해 나타난 것이든 연령대에 반비례하여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뉴스 이용을 인터넷 위주로 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임을 보여준다.

▌4. 인터넷 뉴스 이용의 특성 및 사회문화적 함의에 대한 탐색

인터넷 뉴스 이용과 관련된 세 가지 변인은 국가관, 사회신뢰, 사회에 대한 지각, 정치적 성향,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상관관계 패턴을 보인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터넷 일반화 이후, 뉴스 이용 방식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경향, 즉, 인터넷을 다른 전통적 뉴스매체와 더불어 함께 이용하는 경향과 인터넷이 다른 전통적 뉴스매체를 대체하는 경향이 어떻게 각기 다르게 정치·사회·심리·문화적 변인과 연계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부분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앞서 인터넷 뉴스 이용 관련 변인이 연령, 성별, 소득,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또한 다른 정치·사회·심리·문화적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포함시켜 부분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1) 국가관 및 사회인식

인터넷 뉴스 이용 관련 변인과 사회인식 관련 변인들 간에 부분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와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가 서로 상반되는 상관관계 패턴을 나타냄을 볼 수 있었다. 대체로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는 긍정적인 국가관 및 사회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고,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는 부정적인 사회인식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는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r=.05; p=.022) 및 남북통일 필요성(r=.06; p=.004),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r=.08; p=.001), ‘한국 사람에

대한 신뢰'(r=.09; p<.001)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뉴스매체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한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한국 사회와 사람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는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r=-.11; p<.001), '한국 사람에 대한 신뢰'(r=-.07; p=.001), '한국 사회의 경제적 평등 수준'(r=-.07; p=.003),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r=-.06; p=.015) 등에 관해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는 정적 상관관계(r=.07; p=.015)를 나타냈다. 이는 인터넷에 대한 뉴스 의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 및 대인 신뢰, 사회의 평등성 지각, 정치 만족도, 사회 불안감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회인식 관련 변인들에서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는 대체로 정적인 계수값을,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는 부적인 계수값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표 2-3 인터넷 뉴스 이용 관련 변인과 사회인식 변인 간의 부분 상관관계

사회인식 변인	하루이용 뉴스매체수	인터넷 뉴스 이용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05*	-.01	-.04
한국 역사에 대한 자부심	.02	.00	-.04
남북 통일 필요성	.06*	.02	-.04
한국 사회 신뢰	.08**	.02	-.11**
한국 사람 신뢰	.09**	.04	-.07**
한국 사회 경제적 평등 수준	.04	.00	-.07**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	.00	.05*	.07**
한국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	-.01	-.05*	-.06*

수치는 퍼어슨 상관계수, N=2000, df= 1994, 통제변수: 연령,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 p<.05, ** p<.01, *** p<.001

2) 미디어, 문화, 소통 활동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와 '인터넷 뉴스 이용'은 문화 관람 활동 및 여행 및 레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대인 커뮤니케이션 빈도, 사회활동 모임수 등과 긍정적인 상관

관계를 나타냈지만,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는 컴퓨터 게임과만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뉴스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활발하게 사교 활동을 하고, 주위 사람과 사회적 현안에 관해 대화하며 활동적인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뉴스매체의 이용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및 사교모임 참여 사이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 뉴스매체 이용과 사교활동을 둘 다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대인적 관계나 사회활동에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 및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유형의 소통활동 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 TV 뉴스 이용 역시 대인커뮤니케이션 빈도 및 사회활동 모임 수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와 '인터넷 뉴스 이용'은 TV 뉴스 이용과 달리, 문화관람 활동과 여행 및 레포츠 활동과도 유의미한 관계에 있었다. TV 뉴스 이용의 경우, 문화관람 활동과는 오히려 부적 상관관계(r=-.05; p=.020)를 보여주었고, 여행 및 레포츠 활동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인터넷 뉴스 이용과 여가 및 문화관람활동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인터넷 뉴스 이용방식 중에 소셜 미디어나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뉴스 이용의 경우, 해당 소통공간에서 여가 및 문화관람활동에 대한 정보 및 의견 교환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여가 및 문화관람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 소통공간에서 주고 받는 담론들에 대한 분석이나 인터넷 뉴스 이용의 하위유형을 세분화하여 여가 및 문화관람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단순한 인터넷 뉴스 이용보다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의 경우에서, 여가 및 문화관람활동 간의 상관계수가 더 높은 패턴이 나타났다. 이는 후자의 변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현안에 관심을 갖고, 사교적 활동을 벌이는 성향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사람일수록 인터넷 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데

표 2-4 뉴스 이용 관련 변인과 여가 및 문화활동 변인 간의 부분 상관관계

여가 및 문화활동 변인	하루이용 뉴스매체수	인터넷 뉴스 이용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	TV 뉴스 이용
문화예술 활동 (창작, 연주, 연습 등)	.03	.03	.04	-.07**
여행 레포츠 활동	.08***	.07**	.03	.00
컴퓨터 게임	.11***	.16***	.11***	.07**

문화관람 활동 (문화/대중문화/스포츠 관람)	.09***	.05*	.03	-.05*
사회활동 모임수	.23***	.14***	.02	.12
대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40***	.24***	-.01	.29

수치는 퍼어슨 상관계수, *N*=2000, df= 1994, 통제변수: 연령,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 *p*<.05, ** *p*<.01, *** *p*<.001

적극적일 수 있고, 또한 여가 및 문화관람활동에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다.

3)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는 주관적 행복감이나 스트레스 질환 비경험과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다양한 뉴스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많이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행복하다고 느끼고(*r*=.08; *p*<.001),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질환 경험이 적었다(*r*=.-05; *p*=.038). 인터넷 뉴스 이용 역시 주관적 행복감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r*=.08; *p*<.001)를 보여주었지만, 스트레스 질환 경험과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못했다.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는 두 변인과 관련이 없었다.

뉴스 수용 경험이 직접적으로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상관관계는 뉴스매체를 다양하고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교활동, 여가 및 문화활동, 소통활동 참여 성향이나 그러한 활동의 긍정적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2-5 인터넷 뉴스 이용 관련 변인과 심리적 변인 간의 부분 상관관계

사회인식 변인	하루이용 뉴스매체수	인터넷 뉴스 이용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
주관적 행복감	.08***	.08***	.03
스트레스 정신질환 경험	-.05	-.03	.01

수치는 퍼어슨 상관계수, *N*=2000, df= 1994, 통제변수: 연령,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 *p*<.05, ** *p*<.01, *** *p*<.001

4) 정치 변인과의 관계

'인터넷 뉴스 이용'과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는 진보적인 사회정치적 성향, 야당 성향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인은 모두 야 3당 각각에

대한 호감도와는 정적인 관계를, 새누리당에 대한 호감도와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 역시 야당 성향과 관련이 있었지만, 그 정도가 다른 두 변인보다 다소 약했다. 이 변인은 야 3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계는 보였지만,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사회정치적 성향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대신 이 변인은 선거 참여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인터넷 뉴스 이용’ 역시 선거참여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지만,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는 그렇지 못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진보적, 또는 야당 성향 사람들이 인터넷 뉴스 이용에 보다 적극적임을 말해준다. 또한 인터넷 소통 공간이 대체로 진보적 성향, 야당 성향을 띠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비록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언론사의 뉴스 내용 자체가 진보적이거나 야당 성향의 것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뉴스 이용은 수용자 자신이 의견을 덧붙이거나 재가공 및 공유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뉴스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

표 2-6 인터넷 뉴스 이용 관련 변인과 정치적 변인 간의 부분 상관관계

사회인식 변인	하루이용 뉴스매체수	인터넷 뉴스 이용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
선거 참여	.16***	.09***	-.01
새누리당에 대한 호감도	.00	-.06**	-.08***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	.07**	.09***	.05*
국민의당에 대한 호감도	.09***	.11***	.05*
정의당에 대한 호감도	.06**	.11***	.06**
사회정치적 성향(보수성)	-.01	-.08**	-.09***

수치는 퍼어슨 상관계수, N=2000, df= 1994, 통제변수: 연령,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 p<.05, ** p<.01, *** p<.001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인터넷 뉴스 이용,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의 인터넷 뉴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방식의 뉴스 이용이 다른 정치, 사회, 문화, 심리적 변인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단순히 인터넷 뉴스 이용 변인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와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를 함께 사용하여 관찰하고, 분석할 때, 좀 더 정밀하게 한국 사회의 뉴스 이용 방식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 뉴스 이용의 측면에서 보면, 이미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이 40대까지 일반화되어 20대, 30대, 40대 간 인터넷 뉴스 이용일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전체 뉴스매체 이용일에서 인터넷 뉴스 매체 이용일의 비율을 나타내는,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의 경우 세대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젊은 세대일수록 뉴스 이용을 위해 인터넷에 의존하는 정도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 '하루 이용 뉴스매체 수'의 측면에서 보면 40-50대가 가장 높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낮은 패턴이 나타났다. 이는 뉴스매체로서 인터넷의 확산이, 전통적 뉴스 매체 이용집단에게 보다 다양한 뉴스매체를 활용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빠른 추세로 인터넷 뉴스 이용이 미이용 고연령층으로 보다 확산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다양한 뉴스매체 이용 정도가 높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매체 확산이 한계에 도달하면, 인터넷은 점차 독점적인 뉴스의 채널로 자리잡게 될 수 있다.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는 새로운 세대일수록 인터넷 외의 뉴스매체를 이용하지 않게 됨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와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는 인터넷 뉴스 이용의 두 다른 양상을 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인터넷 뉴스 이용이 개인이 사용하는 뉴스매체 레퍼토리를 증가시키는 양상을, 후자는 인터넷이 전통적 뉴스매체를 대체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개인적 수준에서 구별되는 뉴스 이용 방식을 나타낼 수 있다.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 및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와 다른 정치, 사회, 문화, 심리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본 결과, 두 뉴스 이용 방식은 서로 다른 상관관계 패턴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각 뉴스 이용 방식의 특성이나 그것의 사회적 함의에 살펴볼 수 있었다.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는 부정적 사회인식과 관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연령,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통제하였을 때 인터넷 의존도가 높을수록 사회신뢰, 대인신뢰, 사회의 경제적 평등 수준, 안전에 대한 불안감, 정치 만족도의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향이 나타났다. 뉴스 이용 인터넷 의존도가 '인터넷'만을 통한 뉴스 이용을 보다 잘 대표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뉴스 이용이 부정적인 사회 지각을 가져온다는 가정을 검토하게 한다. 만약 이 가정이 확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비해, 하루 이용 뉴스매체수는 사회 신뢰나 국가관, 민족의식 측면에서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행 및 야외 레포츠 활동, 문화관람활동,

대인적 소통 및 사회활동모임 참여, 그리고 선거 참여와도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다양한 활동적 행위와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두 유형의 변인 간의 직접적 관련성에 의해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개인의 활동적, 사교적 성향이라는 매개 변인에 의한 결과로 추정되었지만, 인터넷 뉴스 이용이나 다양한 뉴스매체의 활용이 이들 활동을 하는데 촉진제, 매개제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성태·이영환. (2006).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의제 설정 모델의 적용. <한국언론학보>, 50(3), 175-204.

김은미·양정애·임영호. (2012). 온라인 뉴스환경에서의 이용자 참여와 속성의제설정. <한국방송학보>, 26(3), 94-134.

김은미·이주현. (2011). 뉴스 미디어로서의 트위터. <한국언론학보>, 55(6), 152-180.

장병희·남상현. (2012). 소셜미디어의 발전과 네트워크 저널리즘 전망. <언론과학연구., 12(4), 457-496.

정일권·김예란. (2010). 온라인 뉴스의 양식과 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4(3), 146-166.

정회경·김사승. (2007).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의 뉴스생산양식 특성에 관한 분석. <한국언론학보>, 51(2), 124-152.

Althaus, S. L., & Tewksbury, D. (2000). Patterns of Internet and traditional news media use in a networked community. *Political Communication*, 17(1), 21-45.

Newman, N. Fletcher, R. Levy, D. & Nielsen, R. K. (2016).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16*.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Newman, N., Levy, D. & Nielsen, R. K. (2015).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15*.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